

實錄研究家 人間文化財
李 在 範

7. 어긋나는 기대(期待)

그해 3월 16일, 세자의 사슴(射習=활 쏘기 연습) 문제에 대하여 이론이 분분 하였다.

태종은 장차 군왕이 될 세자의 과감성을 기르기 위하여 사슴을 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우빈객 이래(李來)와 필선 민첩(閔楨)은 반대를 하고 나섰다.

『세자께서 학문과 사슴을 겸하게 하오면 자칫 학문을 소홀히 할까 두렵사 옵니다.

그러하온즉 명년까지는 다만 학문에 전념 하도록 하옵고 사슴은 그 후에 익히도록 하오소서.』

태종은 의견을 달리하였다.

『자고로 제왕이란 과감성이 없으면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우니라. 무릇 말을 달리고 활을 쏘는 것은 제왕으로써 과감성을 기르는 길이거늘 이제 세자로 하여금 사슴을 하게 함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황희(黃喜)가 머리를 조아렸다.

『신이 어리석은 탓이었읍니다. 사슴과 함께

학문에도 정진토록 하오소서』

세자는 그 천성이 조왕인 태조를 닮았는지 기사(騎射)에 비범한 재질을 타고 났다. 그는 겨우 한달에 걸쳐 사슴을 익히더니 마침 광연루(廣延樓)에서 베풀어진 잔치 때에 스스로 말을 달리고 나아가서 열번 쏘아 여덟번을 맞추었다 한다. (世子中候 凡八).

이 무렵 궁중에서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종지전제사건(宗支剪除事件)이다.

태종왕비 민씨(閔氏)의 친동생들인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이 왕자(王子)들을 해치려한 사건이다. 왕세자인 제(禔)를 제외한 다른 왕자들을 없이 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어 민무구는 옹진(翁津)으로, 민무질은 삼척(三陟)으로 귀양을 갔다가 마침내 스스로 목매어 죽게한 사건이다.

태종은 몹시 상심을 하였다. 5월 22일, 태종은 황희를 배석케한 자리에서 세자인 제와, 효령대군 보(孝寧大君 補), 충녕대군 도(忠寧大君 陶=世宗), 성녕대군 종(誠寧大君 種)을 불

것으로 추측이 되며 성능이 좋다는 왜선과 모의 전투를 할 정도이면 그 성능 또한 상당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1593년 (선조)의 이순신(李舜臣)의 거북선보다 179년이나 앞서 이미 거북선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거북선에 대하여는 다른기회에서 상론할것임)

태종의 강무대열은 평주(平州)와 해주(海州)를 거쳐 제릉(齋陵=太祖妃韓氏)에 이르러 친히 별제(別祭)를 지내고 해주 동정(東亭)으로 돌아왔다. 여기에서 적지 않은 파란이 일어났다. 세자가 태종이 엄금하고 있는 매(鷹)를 달고 다녔기 때문이다.

태종은 크게 노했다.

『과인이 그렇게도 금하고있는 매를 세자는 어찌하여 또다시 가까이 하는가. 일찌기 매로 말미암아 종친과 대신들이 문책을 당한바 있고 또한 대간(臺諫)들이 귀양을 간 바 있거늘 세자는 지금까지 이를 고치지 아니하니 이 무슨 못된 버릇이란 말인가. 이번 강무행차에 세자의 배행을 허락치 아니하려 했으나 세자는 이미 어린아가 아니므로 행여부자간에 은정이 상하지 아니할까 염려되어 참여케 하였더니 간사한 무리들의 아첨에 현혹되어 또다시 매를 회롱 한단 말인가. 세자는 즉시 도성에 돌아가서 근신토록 하여라!』 세자는 즉일로 환도 하였다.

8. 벌어지는 천륜(天倫)

이와 같은 일이 있는 뒤부터 태종과 세자 제의 사이는 점점 틈이 벌어져 갔다.

그해 3월 21일. 궁중에서는 돌풍이 휘몰아쳤다. 사헌부에서 동궁에 대한 상소가 올라왔다.

『세자가 기거하는 동궁(東宮) 북쪽 담장 아래

전에 없던 자그마한 오솔길이 트여져 있어온즉 이는 분명 동궁에 몰래 드나드는 자가 있는 증거이오니 통촉하소서.』

태종은 동궁 소수(小豎=동궁에서 잔 일을 보는 내시)를 불러 놓고 국문(鞫問)을 했다. 끈장을 몇대 맞은 소수는 사실을 토로했다.

『바른대로 아뢰오리다. 예빈시(禮賓侍)에 있는 조덕중(曹德中)과 내침시(內瞻寺)에 있는 허원만(許原萬)이 서방색(書房色)진보(陳鋪)등과 짜고 평양 기녀(妓女)소앵(小鶯)을 은밀히 동궁에 출입케 하였읍니다.』

태종은 크게 한탄을 했다.

『지난 해에도 진보등이 세자를 그릇인도한 바 있어 과인이 진보에게 매를 때려 쫓아 버린 사실이 있었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자는 여전히 진보를 은밀히 불러들여 기녀들과 어울려서 그렇듯 밤마다 불의하게 놀아나며 끝내 개전(改悛)할 줄 모르도다. (…每當昏夜 納妓小鶯 以陷不義 世子尚不改悛)』

조정 중신들은 동궁을 대전결에 두게하여 그와 같은 잡배들의 출입을 막는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태종은 한숨만 내어 쉬었다.

『세자가 비록 과인의 곁에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행위를 고치지 아니하면 헛되이 부자의 정만 상하게 할 뿐이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별내침시사(別內瞻侍事) 김매경(金邁卿)과 판예빈시사(判禮賓侍事)는 파직이 되었다.

그해 8월 13일. 또다시 물의는 일어났다.

세자궁에 몰래 숨겨두었던 매가 발견 되었다. 태종은 크게 노했다. 중관을 세자궁에 보내어 환관(宦官) 주희산(周希山)과 박유(朴猷), 유문의(柳文義)등을 잡아다 국문을 하였다.

그해 겨울, 세자는 제왕자들과 왕녀들을 거느리고 편전(便殿)에 나아가 부왕과 모후(母后) 민씨(閔氏)에게 장수(長壽)를 비는 헌수(獻壽)의 시가(詩歌)를 올렸다.

제 왕자중에서도 충녕대군도(忠寧大君 陶=世宗)의 시재(詩才)는 놀라웠다. 태종은 세자에게 일렸다.

『충녕은 장차 너를 크게 보필할 것이니라(將佐汝 斷決 大事者也)』

세자도 충녕대군을 칭송했다.

『충녕은 참으로 착한 아우입니다.』

모든 왕자와 왕녀들은 글을 짓고 그림을 그리며 또한 비파와 거문고를 타며 태평성세를 구가했다. 태종과 왕후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 보며 크게 즐거워했다.

그러나 그러한 화합분위기도 몇달이 가지 않았다.

해가 바뀐 14년 1월 2일, 세자 제는 그의 장인이 되는 김한로(金漢老)댁에 은밀히 종을 보내어 말 한필을 얻어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말에다 창기(倡妓)를 태워 오게 하여 또 다시 풍류에 빠져 들었다.

그해 10월 30일, 부마(駙馬=왕의 사위)인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貞順公主의 夫)이 왕자들을 그의 저택에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세자는 기녀 초궁장(楚宮粧)을 데리고 가서 부왕인 태종으로 부터 크게 노여움을 산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겹쳐서 마침내 또 한차례의 물의가 일어났다.

다음해 1월 16일, 태종은 세자의 스승인 빈객 이래(李來)와 변계량(卞季良)을 불러 놓고 크게 꾸짖었다.

『경들은 세자의 스승으로 선임한 것은 세자로

하여금 덕성을 함양하고 효제충신(孝悌忠信)의 길을 배우게 하는 데 그 뜻이 있거늘 어찌하여 올바르게 보도치 아니하며 잘못된 일을 간하지 아니 하는가. 세자의 처신중에 무엇 하나 효제충신에 맞는 일이 없으니 도시 그대들은 무엇을 가르쳤다는 말인가?』

이래와 변계량은 황공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그들은 곧 서연관(書蓮官)을 대동하고 동궁에 나아갔다. 그들은 세자궁 뜰위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세자의 실덕(失德)을 일일이 매거하여 가며 극간을 하였다.

『동궁전하, 전하의 가슴 속에는 사욕(私慾)이 가득차 있습니다. 전하는 전하의 적장(嫡長)의 몸으로써 동궁의 정위에 있는지 이미 수년이 지났음에 마땅히 주야로 깊이 생각하는바 있어야 하지 않사옵니까. 그리하여 위로는 전하의 어의를 받들고 아래로는 만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야 함이 마땅히 거늘 어찌하여 이렇듯 누차에 걸쳐 과실을 일으켜서 전하의 책망을 받게 되오니 이르고서야 어찌 동궁의 위를 반석같이 편안하게 유지하오리까. 전하, 전하의 왕자가 어찌 동궁전하 뿐이옵니까. 신이 용열하나 전하를 시강한지 이미 14년이 지났으며 그간의 보도의 결과는 없어지고 오늘날 이와 같은 교지(教旨)를 받게 되오니 신은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아옵니다. 이르고서도 전하께서 누우치지 아니하시오면 신은 이제 보도의 임(任)을 감당하기 어렵사옵니다. 원하옵건데 이제부터라도 심기를 바로 하시와 종묘(宗廟)와 군왕의 길을 닦으실 것이며 간사한 무리들을 멀리 하오시고 바른 선비를 가까이 하시와 마음을 새로이 하시오면 종사를 위하여 행심이 될까 하오이다.(邸下 滿腔子 皆是私慾 既以嫡長 正位東宮 歷年于茲 所宜日夜深思 上承 殿下之意 下繫 百

러놓고 간곡히 당부를 하였다.

『너희들은 핏줄을 나눈 친형제이니라. 부디 서로들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이 왕실(王室)을 든든하게 하도록 서로 도울지니라...』

태종은 현연히 눈물을 흘렸다. 세자와 다른 왕자들도 함께 울었다.

왕은 다시 황희에게 말했다.

『경은 오래된 대신인지라 과인의 뜻을 헤아리리라. 이 세자와 이 왕실을 잘 보살펴 주오.』

이윽고 황희가 물러가려하니 왕은 세자로 하여금 전문까지 전승케 하였다.

황희는 세자에게 일렀다.

『전하께서는 부왕전하의 말씀을 명심하오소서 이 나라 만대의 앞날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볼 때 태종이 외척의 세력을 잘라버리기 위하여 그의 처남들인 민무구 등을 무고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여 버렸다는 오늘의 속설을 그대로 믿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할 것이다.

11년 10월 4일. 태종은 강무(講武=수렵을 하며 무예를 익히는 행사)에 나갈 때에 세자를 호송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자의 스승인 이래(李來)와 조용(趙庸)은 크게 반대를 하고 나섰다.

『그렇치 아니하여도 세자께서는 근자에 이르러 서연(書筵=글을 익히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운데 또다시 강무에 호종케 하오시면 학문의 뜻이 점점 멀어져 갈까 두렵사옵니다.』

이때 세자의 스승들은 크게 고심을 하고 있었다. 지난번에 태종의 승락하에 사슴에 손을 뻗 뒤부터 세자는 무예(武藝)에만 탐익할 뿐 전혀 학문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 뿐인가,

그와 함께 점점 오락에도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세자빈객들이 세자의 강호무종을 극력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한 낌새를 눈치챈 사간원(司諫院)에서도 서둘러 상소를 올렸다.

『세자는 본래 천자(天資)가 숙성하여 어질고 효도하며 학문을 지극히 좋아 하였는데, 세자의 곁에 있는 상호군(上護軍) 심정(沈汀)이 세자를 올바르게 보필 하지 아니하고 일찌기 매(鷹)와 기녀(妓女)를 가까이 하게하여 세자로 하여금 그릇된 길을 걷게 하였으니 그를 마땅히 파직함이 가합니다.』

그와 같이 깊은 사연은 모르고 태종은 끝내 세자로 하여금 강무에 호종케 하였다.

『세자는 마땅히 학문에 열중하여야 하며 안일만 유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글을 익히는 학문과 함께 무(武)를 닦는 강무 또한 소홀히 할 수는 없느니라.』

문무겸전(文武兼全)의 훌륭한 제왕을 만들고자 하는 태종의 생각이었다. 이리하여 세자는 부왕을 따라 강무에 참여하였다.

세자로 하여금 영명(英明)한 제왕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태종의 뜻은 계속되었다.

13년 2월 4일. 세자 제는 한양(漢陽=서울)에서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에 이르는 대강무에 태종을 따라 참여했다. 강무의 대열은 2월 5일에 임진(臨津) 나루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태종과 세자는 거북선(龜船)과 왜선(倭船=왜인 平道全이 만든 것)과의 모의전투상황을 관전하였다. (上過臨津渡 觀龜船 倭船 相戰之狀) 그때의 거북선이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우리역사상에 처음 나타나는 거북선에 관한 기록이다. 당시 우리 연해를 괴롭히던 왜구((倭寇)를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들은 강민(姜敏), 한룡봉(韓龍鳳) 등과 함께 은밀히 매와 기녀를 세자궁으로 들여 보냈다는 것을 자백했다.

『과인이 그렇게도 금지하였던 매와 개(犬)를 또다시 회롱하여 세자의 체통을 잃게하고 군부의 명을 어긴단 말인가.』

잡혀온 그들은 곤장 백대씩을 맞고 울주(蔚州)로 귀양을 갔다. 그와 함께 세자궁의 문지기들은 모두 같이 치웠다.

그와 같은 사건이 있는 뒤부터 세자는 병을 핑계하여 부왕에게 문후(問候)를 들지 않았다. 세자빈객 유창(劉敞), 변계량(卞季良) 등은 세자의 보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대죄를 하였다.

태종은 마침내 중대한 말씀을 하였다.

『그 아이가 과인에게 문후를 들지 아니함은 과인에 대하여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러함이니라(不勝其憤也). 옛날에 세자를 폐(廢)할 때에는 대개 환관이나 아녀자들의 간특한 말을 듣고 그러하였거니와 과인은 그러한 환첩(宦妾)들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은 아니로다. 지금 그 아이는 이미 세자가 되었다는 지위를 믿고 그러한 듯 하나 끝내 그 버릇을 고치지 아니하면 어찌 이 종실에 그가 있을 뿐이던가. 지난날에도 매와 개로 인하여 죄를 받은자가 적지 아니한데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경들은 도대체 세자에게 무엇을 가르쳤단 말인가. 과인이 매(杖)를 잡고 세자의 버릇을 고치고자 하나 부자간의 정을 상하게 할까하여 그만 두느니라(…古有廢世子者皆由宦妾之訴我無是也世子之心必以其位為足恃也若果不悛則宗室豈無其人卞往者以鷹犬之娛被責者數矣若是比鄒等教誨之效予欲杖之以正其罪但恐其傷恩也).』

「종실에 어찌 그가 있을 뿐이겠는가.」 참으로

중대한 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세자를 갈아 치울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왕권의 계승에 대한 태종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있다는 중대한 국면이다. 이미 세자가 책봉되고 왕권의 계승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국내외의 질서가 굳어져 가기 때문에 아무리 제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질서가 파괴되고 자칫 내란까지 몰고올지도 모르는 국본의 변경에 속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태종의 마음이 외부에 표시된 최초의 일이며 이때부터 태종이 세자의 폐립을 신중하고 고려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 시점이 세자 제가 폐세자가 되어 양녕대군(讓寧大君)으로 강봉이 되는 비극의 시발점이라 볼수있다. 물론 태종의 내심이 언제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길이 없으나 그것이 외부에 나타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태종은 그후에도 세자가 스스로 개전하기를 기다렸다. 세자로 인한 커다란 풍파들이 여러번 일어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9월에 제가 부왕인 태종에게 반항적인 폭서(慕書)를 올렸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까지 내심으로는 만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자후보를 물색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에 대한 희망을 전혀 버리지 아니한듯하다.

그러한 과란이 있는 뒤, 궁중은 의외로 평온해졌다. 세자 제가 다시 심기를 바로하여 학업에 열중하였기 때문이었다.

동궁에는 밤낮으로 세자의 글읽는 소리가 낭랑히 들렸다. 어려운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매일 다섯장 내지 여덟장을 제쳐 넘겼다.

그러한 결과 태종을 비롯하여 조관(朝官)과 시학관(侍學官)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궁중에는 다시 훈훈한 화기가 감돌았다.

姓之望 令乃不然 屢以過失 取譴症上 厥位惟難
 何可以東宮之位 爲如盤石之安卞 殿下之子 止邸
 下卞 臣以庸愚 得侍書帷 十有四年 輔導無狀 今
 奉教書 思欲于地下 猶不悔過自新則 臣不散居 輔

養之任 願思所 以奉宗廟事殿不之道 疎遠歸寺 親
 近正士 洗心滌慮 宗事幸甚』

저 유명한 조선국초의 문장가(文章家)이며 정
 치가인 변계량의 피눈물나는 당부의 말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토막지식〉

유아의 조제분유 먹이기(예)

나 이	먹 이 기
0 ~ 3 개월	조제유는 매 4 시간마다 먹이고 과실을 필요에 따라 먹기 좋게 만들어 먹인다.
2 주일부터	2 ~ 3 티스푼의 곡물죽 또는 곡물죽과 저녁 늦게는 과실을 한번 먹인다.
2 개월부터	매일 4 병의 조제유와 아침에는 곡물죽을 주고 저녁 늦게는 조제유만을 준다.
3 개월부터	조제유를 끊고 2% 저지방유를 4 병 하루에 먹이며 곡물죽에 과실 또는 녹색채소를 잘 먹도록 갈아서 하루에 두 번 넣어 준다.
4 개월부터	매일 4 병의 2% 우유와 녹색채소를 하루에 한두 번씩 먹이고 황색채소도 먹일 수 있다.
5 개월부터	매일 2% 우유 4 병씩 먹이고 다른 것은 마찬가지이다.
6 개월부터	2% 우유를 매일 4 병 먹이고 고기 또는 계란 노른자를 먹기 좋도록 만들어서 매일 한가지 또는 두가지 다 먹인다.
7 ~ 8 개월	2% 우유를 3 병으로 줄이고 일반음식을 먹이기 시작하며 단단하거나 씹히지 않는 것은 갈아 준다.
8 ~ 9 개월	어린이에게 먹이는 음식을 정상으로 먹이기 시작한다.

Dr. Bermann's Formula (Madison, Wisconsin, U. S. A.)